

한·미 FTA와 우리 원자력산업

강 창 순 |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

한국과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계기로 가장 가까운 경제 동맹국이 되기로 약속을 한 것이다.

지난 4월 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이는 미국이 한국을 진정한 경제 파트너로 인정한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이제 안보 동맹 위에 경제 동맹이 겹쳐졌다. 그 경제·사회적 파급 효과는 앞으로 엄청나게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원자력산업계도 적절한 대응 방안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산업계는 물론 정부 차원에서 창의적이고 현실적 한·미 원자력 협력 방안을 내놓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 바란다.

우리의 원자력산업은 한·미 FTA 타결을 계기로 새로운 기회와 도전의 바다로 나서게 된 것이다. 특히, 그 동안 우리의 원자력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던 한국과 미국 간의 불평등한 원자력협정도 경제 동맹 관계로 이루어진 양국의 FTA 정신을 계승하는 차원에서 합당한 개정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원자력을 '주력 에너지원'으로 하고, 원자로와 핵연료 관련 기술을 '수출 산업으로 육성' 한다.

이는 우리나라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서 오랫동안 언급되고 있는 국가 원자력 정책의 기본 목표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신규 원전을 건설해 왔고, 해외 수출을 목표로 표준형 원전의

및 국제 경쟁력 확보와 함께, 해외 마케팅 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원전 산업 체제의 확립이 절실하다.

원전 관련 제반 기능 및 기술을 한 곳으로 집중시켜, 원전 수출의 기본 단위(주기기 및 핵연료 공급, 애프터서비스)로서의 기능을 완성시켜야 한다. 특히 설계-제작-설치의 통합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우리 원전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한 차원 승화시킬 것이다.

이제는 미국과의 상호 협력을 기반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 해외 시장에서 미국의 피동형 원자로 AP-1000과 과열 수주 경쟁을 벌릴 것이 아니라, 발주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우리의 표준원전인 OPR1000 및 APR1400을 함께 제안함으로써 미국과 한국이 보완적인 입장에서 긴밀히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프랑스의 AREVA와 경쟁할 수 있는 국내 주기기 공급 회사인 NSSS vendor를 미국의 Westinghouse와 합작으로 설립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세계는 원자력의 재도약을 위해 뛰고 있다. 우리도 이에 발맞추어 나가지 않으면 그 동안에 쌓아 온 우리의 노력은 물거품이 될 것이다.

엉거주춤한 wait-and-see 정책에는 한계가 있다. 세계가 바뀌고 있는데 우리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다.

때맞춘 한·미 FTA 타결이 우리 원자력산업이 갖고 있는 복잡한 매듭을 풀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제 우리는 미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 파트너로서 서로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원자력산업에 관련된 모든 것을 함께 풀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

경제성 및 안전성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제4세대 국제포럼인 GIF에도 참여하여 지속 발전 가능한 고속로 및 수소 생산용 고온가스로 개발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미래의 원자력 이용에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의 원자로형 전략은 확고하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동안 영겨주춤하던 우리의 핵연료주기 전략을 선명하게 할 때가 되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계속 쌓여만 가고 있는 사용후핵연료의 적절한 처리 방안의 강구는 절실하다.

이러한 핵연료주기 전략 수립에서 가장 민감한 과제는 무엇보다 농축 우라늄의 확보와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라 하겠다. 이제는 한·미 FTA 타결을 계기로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이 민감한 과제도 해결할 수 있는 전망을 가지게 되었다.

세계 각국은 지구 환경 문제와 에너지 수급 문제 완화의 현실적인 대체 에너지로 원전을 재평가하고 있다.

선진국은 물론 많은 저개발 국가도 원전 도입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므로, 앞으로 방대한 세계 원전 시장이 예측된다. 한편, 미국, 프랑스 중심으로 세계 원전 시장 선점을 위한 배타적 주도권 경쟁이 시작되고 있다.

선진국의 주도권 경쟁은 그 도구로서 핵비확산, 안전, 안보를 앞세워 자기들 중심으로 틀을 짜고 있다. 글로벌 원자력 공동체인 GNEP, 다국적 설계 평가 프로그램인 MDEP가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다. 우리도 이제 미국과 함께 이러한 선진국들의 기본 틀에 중요한 결정자로서 동참할 계기가 마련되었다.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원전 산업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우리는 우선 국내 원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예견되는 방대한 세계 시장에 적절히 대응하여야 한다. 기술 인력의 효율적 이용